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장흥군, 행복공감 재가
암환자 자조모임 운영

장흥군은 24일 군보건소에서 '행복공감 재가암환자와 가족 자조모임'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자조모임은 재가암환자와 가족들에게 암 극복을 위한 용기와 재활 지지를 키우고 장기적인 건강관리 지지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군은 원예치료, 웃음치료, 미술치료, 영화보기 등의 프로그램을 매월 제공하고 있으며, 6월은 도자기 꾸미기 체험을 실시했다. 자조모임은 재가암환자 뿐만 아니라, 가족 및 치료중인 환자도 참여할 수 있다. 상호간 정보공유 및 각종 체험을 통해 자가 관리 능력을 고취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정종순 군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보건소 프로그램 등 주변사람과 소통하면서 자라나면 반드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송호빈 기자

치매 걱정 없는 담양 위한 실버복지전문가 양성

담양 치매안심센터, 실버인지돌이지도사 양성교육 수료식

담양군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1일 실버인지돌이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자 30여 명과 함께 수료식을 개최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담양군을 만들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주 2회, 총 32시간에 걸쳐 실버인지돌이지도사 양성교육을 운영했다. 수료생들은 치매의 이해, 인지음악, 인지미술, 인지운동, 인지보드게임, 인지회상, 전문감사기술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들으며 실무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했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실버인지돌이지도사 자격이 주어지며, 앞으로 경로당과 지역마을을 찾아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실버인지돌이지도사가 우리 지역에서 충분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치매 예방 사업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획일적 장애등급제 도입 31년만에 폐지된다

저마다 여건이 다른 데도 장애등급 1~6급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획일적으로 차등 제공해 온 장애등급제가 도입 31년 만에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조사'를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된다.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을 늘리고 기존 수급자가 탈락하더라도 최소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획일적 장애등급 31년만에 폐지... '중증' '경증' 으로만 등록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15개 장애유형별로 의학적 심사에 따라 중증도를 구분하는 객관적 기준이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복지제도와 지원이 이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의학적 판단이 복지서비스 제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장애인 개인의 욕구나 환경 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 지원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2017년 10월 민관협의체를 구성, 관계부처 공동 준비 과정을 거쳐 단계적 폐지를 추진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개정 장애인복지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올해 7월부터 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우선 1등급(최중증)에서 6등급(경증)으로 구분해 온 장애등급이 도입 31년 만에 사라진다.

다만 1~3급 중증 장애인이 우대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구분하는 장애인 등록제도는 유지된다.

종전 1~3급은 중증, 4~6급은 경증으로 인정되므로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새 등록증에는 장애인단체 의견을 수렴해 '중증'과 '경증'으로만 표기된다.

1~6등급 대신 중증(1~3급)·경증(4~6급) 단순화
건보료 감면 등 23개 국가서비스 지원대상 확대해
개별 욕구·환경 고려한 '종합조사'로 서비스 지원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7월1일 부터 진행

◇ 장애인 등록체계 개편

현행	개편
장애등급: 1~6급	장애등급: 중증/경증
절대적 기준 폐지	참고자료 정도 활용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변경사항

인정조사	종합조사	
신청대상	장애 1~3급	모든 등록장애인
활동지원등급	기본급여 (4구간)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월 지원시간	최대 441시간 평균 120시간	최대 480시간 평균 127시간+α
본인부담금 최고금액	(현) 32만2900원	(변경) 15만8900원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등급 폐지에 맞춰 내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된다. 소득이 없는데도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비수급 빈곤층' 같은 사각지대가 장애등급제 폐지로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당장 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던 141개 서비스 중 12개 부처 23개 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된다. 1·2급 장애인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 범위가 3급으로 넓어지기 때문이다.

◇ 욕구·환경 고려 '종합조사' 도입...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줄 세우기 하던 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서비스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장애인 욕구·환경 등을 고려해 제공된다.

종합조사는 서비스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족특성, 주거특성 등 조사항목별로 문항별 점수를 국민연금공단이 현장조사를 통해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다음달엔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 분야에 종합조사가 도입되고 특별교통수단 등 장애인 이동지원 분야는 2020년, 장애인연금 등 소득 및 고용지원 분야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장애인 일상생활과 밀접한 활동지원 서비스는 종합조사 적용으로 최대 지원시간이 현행 인정조사상 441시간(일 14.7시간)에서 39시간 늘어난 480시간(일 16.0시간)으로 확대된다. 월평균 지원시간도 120.56시간에서 127.70시간으로 늘어나 최중증 장애인 보호와 장애 유형 간 형평성 있는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최고금액이 현재 32만2900원에서 15만8900원으로 50% 이상(16만4000원) 줄어든다.

서비스 양을 평가할 때 연금공단의 평가매뉴얼과 세부기준은 장애 유형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분화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예를 들어 '웃 같이입기' 항목 평가 시 시각장애인의 경우 웃의 정결상태, 색상과 무늬, 앞·뒤를 구별하기 어려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가 2~3년간 갱신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지원시간이 감소하거나 탈락할 수 있다는 점인데, 복지부는 다음 갱신조사 전까지 종전 활동지원시간을 그대로 인정해 지원수준의 급격한 감소를 막고 수급탈락 예상자에 대해선 특별급여를 인정해 최소 47시간은 보장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으로 올해(1조356억원)보다 2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1조200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 활동지원 서비스 등 수급자 동안대로 전달체계 강화

장애등급 폐지, 지원 확대와 함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도 강화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등록 후에도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직접 찾아 안내할 계획이다.

읍면동의 찾아가는 상담 대상을 독거 중증장애인, 중복 장애인 등 위기가구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는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장애인 특화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협의체는 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 전담조직), 장애인부서,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공공과 민간 장애인 관련 전문기관들이 모두 참여한다는 원칙하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치한다.

민관협력에 기반한 장애인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관 전문인력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나이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건강관리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지립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활동지원 서비스는 주간활동 등 서비스 종류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복지부는 판단했다. 실제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비율이 14.4%(보건사회연구원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달하는 반면 65세 미만 장애인 137만명 중 이용률이 5.8%(8만명)에 불과하다.

활동지원 등 4개 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대국민복지포털 복지포털(www.tokj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뉴스스

야호센터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 Together Gwangsan